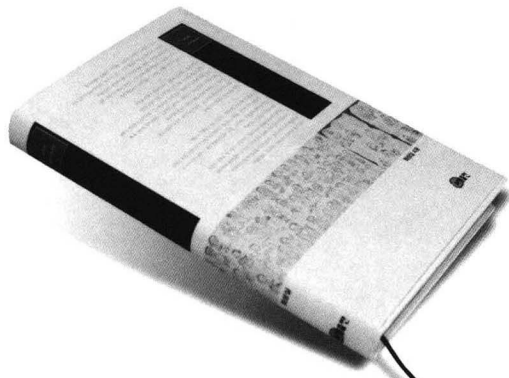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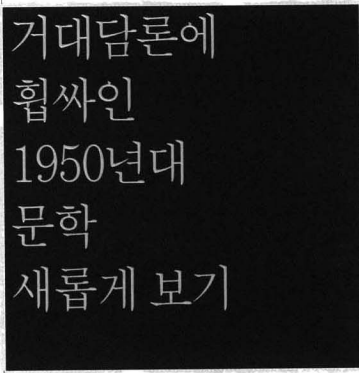


《대한민국 학교대사전》 학교대사전 편찬위원회 지음 | 이레 | 272쪽 | 값 9,000원



《근대, 다중의 나선》 최성실 지음 | 소명출판 | 340쪽 | 값 18,000원



사전은 낱말을 해설한 책이다. 지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사전은 꼭 끼고 살아야 할 도구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전은 “언어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짓밟고 딱딱하고 융통성 없게 만드는 심술궂은 문필 도구”(앤 브로스 비어스)라고 비난 받기도 한다. 비어스가 《악마의 사전》을 만들었듯이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기존의 사전과는 다른 사전을 만들어 유통시킨다.

입시, 학창생활,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익살과 풍자, 패러디로 빚낸 《대한민국 학교대사전》은 《악마의 사전》에 못지않은 유쾌 상쾌 통쾌하고 씩씩한 학교사전이다. 이 사전에서 교감은 “교장의 직속부하로 쓰레기를 발견하면 스스로 줄피 않고 꼭 학생들을 시”키는 사람이고 급식은 “가장 싸면서도 위험한 식사”다.

이 사전을 계속 읽어나가려면 얼굴을 붉히기 전에 반드시 읽어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일러두기다. “1. 이 사전은 반드시 유머감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전은 객관적이지 않다. (...) 12. 본 사전에서는 ‘선생님’에서 ‘님’를 빼고 간단히 ‘선생’이라고 불렀다. 불일까도 고민을 했으나, 사전 특유의 반말체에 নিজ을 붙이지나 어색했기 때문에 생략했다.”

저자들이 밝히고 있듯이 이 사전을 쓰게 된 특별한 동기는 없다. 저자들은 오히려 집필동기를 묻는 사람들에게 “학교를 졸업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분들”이라고 핀잔을 준다. 이것은 일종의 유희이자 답답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한 해방구였다. 물론 이 놀이를 책으로 만들 때에는 목적이 있었다. 사전을 편찬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자들은 입시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이 “안타까운 현실에 발 벗고 나서 학생들이 스스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는 목적으로 본사전을 펴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신동섭 기자

“사실상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간에 ‘일치’라는 논리 하에 다양하고 특수한 현상들을 획일적인 관념의 틀 속에 종속시켜버리는 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폭력이다.”

문학평론가 최성실의 《근대, 다중의 나선》은 1950년대 한국문학비평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결과물이다. 저자는 다양성과 특수성을 지닌 1950년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가 “거대담론이라는 획일적인 관념의 틀”로만 재단되어왔음을 말하며 미시적, 다층적 보기라는 마이크로한 시선을 들이댄다.

책을 이해하는 핵심개념은 ‘틈’과 ‘쪼개져 나오기’. 경계를 허물고 분열되는 양성 속에서 고도의 정치적 맥락이 확인된다는 저자는 ‘중간 지대’의 ‘양가적’ 특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선/악, 미/추와 같은 대립적인 이분법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영역의 들쭉, 곧 자크 데리다 가 말한 ‘차연’ 혹은 ‘산포’의 맥락이다.

‘한국문학비평의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 ‘전후 한국문학비평의 모색과 성찰’ ‘만들어진 근대를 넘어서’ 등 전체 3부로 구성된 책은 1950년대 한국문학과 한국문학비평을 두루 살피며 거대담론의 구획을 벗어난 ‘긴장의 맥’, ‘이질적 사유가 부딪치며 만든 과장의 의미’를 발견한다. “동일하지 않은 것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일반화하거나 차이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한국문학비평은 동일성으로의 환원과 이에 대한 평가의 반복적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저자의 의미가 직립하는 순간이다.

《근대, 다중의 나선》을 통해 경직성을 푼 1950년대 한국문학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다. 한편 저자가 밝힌 근대작품의 또 다른 맥락을 이해하게 될 때면, 문학비평이 문학의 종속물이 아닌, 독자적인 영역임을 깨닫게 된다.

박용두 기자



《노랫말의 힘, 추억과 상투성의 변주》 김수경 지음 | 책세상 | 150쪽 | 값 3,900원

노랫말,
그 시대
대중의 기호
농축한 텍스트

“아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라는 가사를 들으며 “내 얘기가야”라며 감탄해본 적 있으신지? 굳이 조용필의 노래가 아니더라도 대중가요의 노랫말에 공감하며 전율을 느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노랫말의 힘, 추억과 상투성의 변주》는 1980년대 우리나라 발라드 가사에 대한 연구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노랫말, 즉 가사를 특정 시대 개인의 감정은 물론이요 대중의 공동체적 관심사까지 반영하고 있는 텍스트로 인정한다. 이런 의도로 분석해본 1980년대 발라드 가사는 구체성에서 일상성으로 확장 과정을 보여준다. <오래전 그날>, <사랑일 뿐이야> 등의 노래가 감정의 충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내다면 <잘못된 만남>, <신인류의 사랑>은 여기에 일상성까지 덧입혀 동시대적 체험들을 고스란히 옮겨 놓는다.

결과적으로 저자는 1980년대 발라드의 힘을 ‘노랫말의 구체성’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 구체성이란 상투적인 측면에 가까운 보편성을 획득하면서 그 보편성을 슬쩍 비껴간 구체성이다. 사랑과 이별의 감정처럼 만인 보편의 심리를 담으면서도 시대 변화를 수용하며 구체성을 띠게 된 우리 노랫말의 변화를 읽어냈다는 말이다. 그래서 노랫말은 대중의 현실적 감수성과 인간의 보편적 감정 공감대를 모두 아우른 심리적, 사회적 산물로 자리매김을 한다.

그간 대중가요 담론들은 음악사나 비평문 일색으로 형성되었다. 그것도 음악 자체나 가수 자체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이어서 노랫말에 대한 연구는 미답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었던 게 현실이다. 지극히 통속적인 것으로 논의됐던 노랫말을 사회, 심리학적 연구텍스트로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희소가치를 갖는 저작물이다.

김정현_기자

길 위에서
만남 집과,
사람과
나눈 이야기

《길과 집과 사람 사이》 안치운 지음 | 들린아침 | 336쪽 | 값 14,800원



연구평론가 안치운 씨의 세 번째 기행산문집. 그를 오지 기행산문가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1999년에 출간된 《옛길》(학교재)과 《그리움으로 걷는 옛길》(디새집, 2003)이었다. 이번에 출간된 《길과 집과 사람 사이》는 그 이후에 쓴 글들을 엮은 것으로 ‘길’에 한정됐던 이전 책과는 달리 그 소재가 길과 집과 사람으로 확장됐다. 이는 곧, ‘길’과 함께 서 있는 ‘집’(건축)과 해외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다.

“우리나라 산화와 외국의 여러 오지들을 찾아다니면서 등반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야말로 커다란 재미임을 느낄 수 있었다”는 그는 산행이든, 여행이든 가장 큰 매력은 길에서 우연하게 만나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말한다. 일부러 사람을 피하고 떠도는 것이 아니라 그저 툭 터진 곳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며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 사는 일이다.

책은 제목처럼 전체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 <길과 사람 사이>에는 국내외 오지(옛길)에 대한 저자의 사유가 담긴 기행문이 실렸다. 강화도, 태산산맥의 실크로드, 강원도 정선군 구절리 등 끊임없이 ‘길’을 찾아다녔던 저자의 발길이 증명해주는 이름들이다. 이어 2부 <집과 사람 사이>에는 제목처럼 ‘집’과 ‘건축’으로써의 삶이 묻어나는, 공간미학에 대한 저자의 사유가 가득한 이야기가 담겼다. 전문적인 건축평론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안목과 식견으로 ‘생극 성당’ ‘은평구립 도서관’ 등의 현대 건축물들을 찾아가 건축가의 작품 세계를 섬세하게 천착한다. 한편 3부 <사람과 사람 사이>는 공간무대가 모두 외국이다. 저자는 프랑스 아를르에서 빈센트 반 고흐의 예술 혼을 만나고, 운송과 교통의 역사를 가진 스위스 루체른의 ‘교통 박물관’에서는 인간이 이뤄놓은 생생한 ‘교통’의 역사를 만나기도 한다.

홍이현기자